제7회 청주현대미술회 "오아시스"

바이러스:VIRUS

Oasis

2025. 7. 2WED - 7. 14MON

Opening_ 2025년 7월 2일(수) 오후 5시

청주갤러리

인사아트센터 2층(인사동길 41-1)

강호생 김경섭 김성미 김승현 김영란 김정하 김정희 김지현 김태복 김태철 문호
민병길 박영학 사윤택 소영란 손부남 연영애 오송규 우은정 이규선 이규식 이기수 이상헌 이용택
이종관 임미나 임민수 장백순 정민용 최규락 최익규 한희준

후원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CONTENTS

청주현대미술회 Oasis

작가소개 및 작품

강호생 김경섭 김성미 김승현
김영란 김정하 김정희 김지현
김태복 김태철 문 호 민병길
박영학 사윤택 소영란 손부남
연영애 오송규 우은정 이규선
이규식 이기수 이상헌 이용택
이종관 임미나 임민수 장백순
정민용 최규락 최익규 한의준

평론

CRITICAL ESSAY
KIM CHONG GEUN

01

Hoseaeng Kang

강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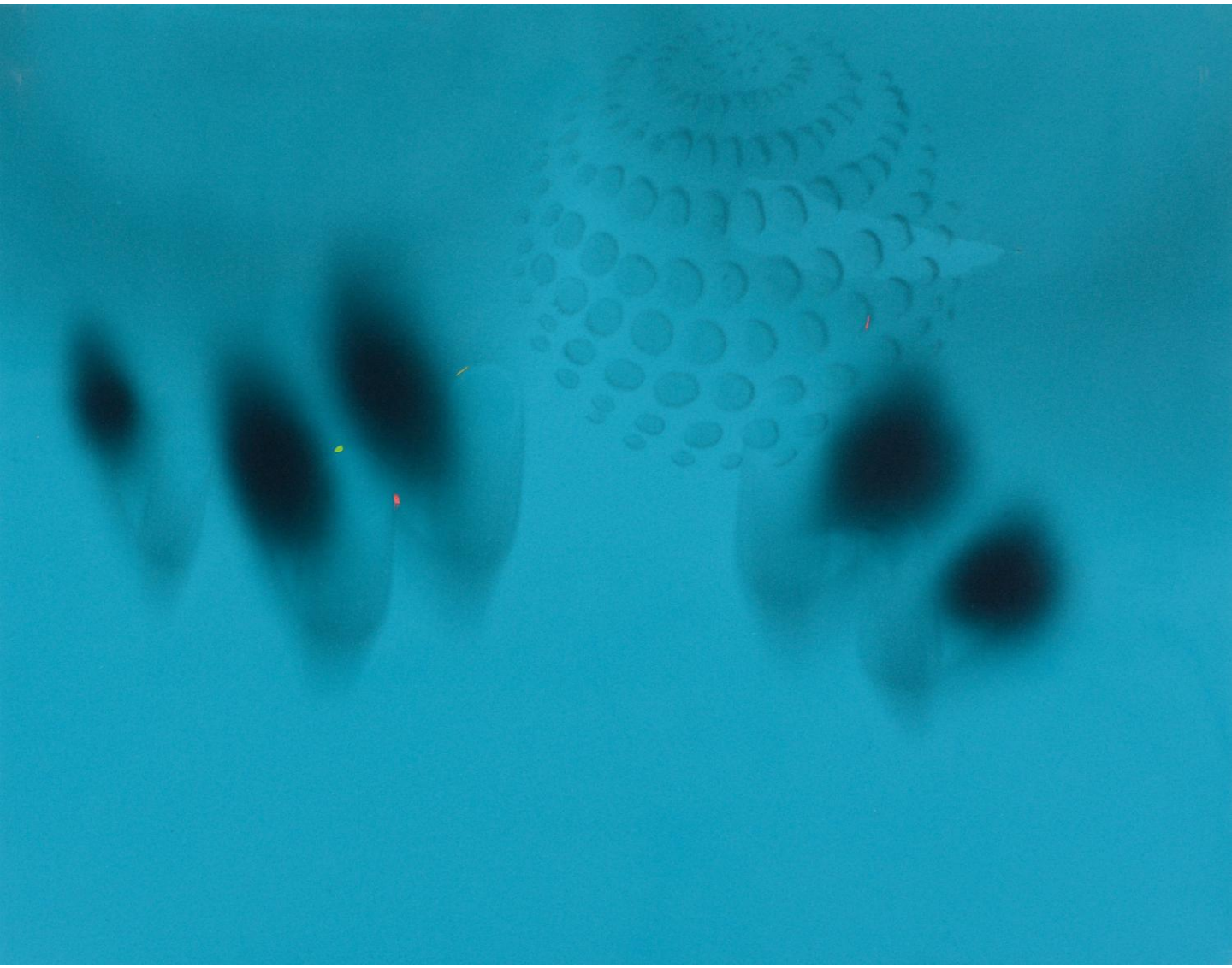
강호생 Hosaeng Kang

SOLO SHOWS

2024 현재 23회(청주, 대전, 서울, 뉴욕, 프랑스 등)

GROUP SHOWS

2024 현재 420여회



Calling of Life

60 x 77 x 5.5 cm
Acrylic Color on the Fabric
2020

02

Kim, Kyoungsub

김경섭

SOLO SHOWS

2025 기억-에피소트1(숲속갤러리, 청주) 외 총 17회

GROUP SHOWS

2024 초코파이 헬로키티(충북대 미술관, 청주) 외 다수

김경섭 Kim, Kyoungsub

Landscape

50 x 65 cm
캔버스에 유채
2025

03

KIM SUNG - MI

김성미

김성미 KIM SUNG-MI

SOLO SHOWS

2024/ 제13회 김성미 개인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상에서 마음에 온기를 지피는 얼굴들, 청주교육대,청주
2022/ 제12회 김성미 개인전-숲의 잔상, 쉐마미술관, 청주
2020/ 제11회 김성미 개인전, 라메르갤러리, 서울. 2021춤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2020/ 제10회 김성미 개인전, 청주근현대건축문화유산12경, 충북문화관, 공예관, 청주
2018/ 제9회 김성미 개인전 '생성-치유의 숲', 청주대학교 청석갤러리, 청주 외

GROUP SHOWS

2024/ 쉐마아트포럼회원전-색채,사물,언어에 대한 고찰, 쉐마미술관,청주
에꼴 정기전-봄을 훔친 화가들, 혜화아트센터, 서울
2023/ Perspective-12인의 시선, 네오아트센터초대전, 네오아트센터, 청주
대전아트쇼, 대전컨벤션센터, 대전
경주아트페어, 경주컨벤션센터, 경주
충북여성미술작가회 정기전,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2022/ 후기애스펙트현대미술회전- 미술의 새로운 변종과 변이,쉐마미술관, 청주
청주교육대학교미술교육과 교수전, 청주교육대학교미술관,청주
충북여성미술작가회-20주년기념전,마더필드,춤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외 80여회

RESIDENCY

청주복합문화체험장, 하이브캠프, 청주
New Space Art Foundation, 후에, 베트남
우따라얀 아트캠프, 바라도라, 인도

OTHER PROFESSIONAL HIGHLIGHTS

2015 양평군립미술관 소장품 공모전
2019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작품소장

04.

KIM SEUNGHYUN

김승현

SOLO SHOWS

2025 <용도를 잃은 사물들> 인사아트센터 충북갤러리 (서울, 한국)
2025 <사물, 그리고 시간> 숲속갤러리 (청주, 한국)
2021 <낯선 우아함>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장 (청주, 한국)
2019 <隠された自分 ▪ 隠す自分 camouflaged> Azabujuban gallery(동경, 일본)
2019 <가려진 나 ▪ 가리는 나 camouflaged> 청주시립미술관 오창 (청주, 한국)
2017 <CAMOUFLAGE> Maronie gallery(교토, 일본)

GROUP SHOWS

2024 <Three Point Stance : LKK> 스페이스 로 (서울, 한국)
2023 <기도메타> 인사아트센터 충북갤러리 (서울, 한국)
2023 <재생버튼> 관훈갤러리 (서울, 한국)
2021 <낯선 도시, 도착한 사람들, 어떤 이야기> 청오 (청주, 한국)
2020 <LAYERD COMPETITION & EXHIBITION> 갤러리 레이어드 (부산, 한국)

김승현 KIM SEUNGHYUN

Re:Time-C001

121 x 63 x 65 cm
오브제 집적
2025

05

KIM YOUNG RAN

김영란

김영란 KIM YOUNG RAN

SOLO SHOWS

2025 네오아트센타 초대전
2024 갤러리 헬렌에이 초대전
2012~2024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예술의전당, 코엑스)
2021 에코뮤지엄 초대전 (남송미술관 별관)
2019 바우지움조각미술관 초대전 (바우지움미술관)
2018~2019 Gallery H 순회초대전 (목동점, 킨텍스점, 충청점, 미아점)
2016 장은선갤러리 초대전

GROUP SHOWS

2025 충북갤러리 기획전 [충북갤러리]
2024 태국국제현대미술 초대전 [치앙마이 루나갤러리]
2020 여주미술관 기획초대전 [여주미술관, 여주]
2019 한중교류전 광저우 자니당예술관 [광저우], 중국
청주공예비엔날레 -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본전시 [옛 청주연초제조창], 청주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2018 갤러리 4WALLS [Beauty in Grace 2인 초대전], 서울
2018 한중교류전, 항저우

attraction

89 x 68 cm
korean papper
2023

06

김정하

PROFSSIONAL BACKGROUND

청주대학교 아트앤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SOLO AND GROUP SHOWS

극내 개인전 및 국내 · 외 단체전 다수

김정하

공존 : Coexistence

42 x 59.4 cm
Digital Work
2025

07

KIM, JEONG - HEE

김정희

김정희 KIM, JEONG-HEE

SOLO SHOWS

개인전 23회(서울, 청주, 대전, 베이징, 도쿄 등)

GROUP SHOWS

다수

PROFSSIONAL BACKGROUND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Thingscape 25-006

72.7 x 90.9 cm
Acrylic Color on Canvas
2025

08

Jihyun Kim

김지현

SOLO SHOWS

개인전 16회
(마산 현대미술관 초대, 충북갤러리(인사아트센터2층), 갤러리 C, 그림손Gallery, 현대백화점내 H Gallery, 예술 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대청호미술관, The K Gallery, 서산Gallery, 청작화랑,
U.B.C.Asian Centre Canada, 무심Gallery, 나라화랑,
중국현대화랑, Gallery 현대, 안양미술관)

GROUP SHOWS

단체전 및 국제전 450여회 출품

PROFSSIONAL BACKGROUND

추계예술대학교 및 홍익대 대학원에서 석사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역임

김지현 Jihyun Kim

무제(Untitled)

72.7x 60 cm
캔버스에 아크릴릭
2025

09

Kim, taebok

김태복

김태복 Kim, taebok

SOLO SHOWS
2018(court gallrery, 동경)
2019(88 갤러리, 동경) 등 11회

GROUP SHOWS
단체전 및 기획전 다수

PROFSSIONAL BACKGROUND
청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이몽(異夢)-파편화된 기억(202505)

61.5 x 61.5 cm
Mixed Medium on Canvas
2025

10

Kim Tae-Chul

김태철

PROFSSIONAL BACKGROUND

현,
충청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전,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청주국제북아트전 커미셔너
코리아북아트협회 회장
한국북아트협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충청북도 지회장
한국미술협회 청주시지부 지부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청주시 지부장
충청북도미술대전 대회장

SOLO SHOWS

2025 한옥란갤러리, 서울
2019 갤러리자인제노, 서울
2011 김윤신갤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10 갤러리SO, 서울
2005 토포하우스갤러리. 서울 &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1997 김내현화랑, 서울 & 무심갤러리, 청주
1995 포이어갤러리 & 비센트갤러리, 울버헴프턴, 영국
1988 롯데갤러리, 서울

GROUP SHOWS

다수

김태철 Kim Tae-chol

인연생인연멸

60 x 90 cm
피그먼트프린트
2020

11

문 호

MOOnH HO

문 호 Moon Ho

SOLO SHOWS
2023 Hidden Fragments (갤러리 인사아트, 서울)
2022 The Moment (인사아트센터, 서울) 외 15회

GROUP SHOWS
2025 마주한 계절, 재해석된 풍경 (비디갤러리, 서울)
2024 Feel & Fill (BOK아트센터, 세종)
2023 호반문화재단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PROFSSIONAL BACKGROUND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조교수

그 순간

53 x 72.7 cm
캔버스에 유채
2025

12

민병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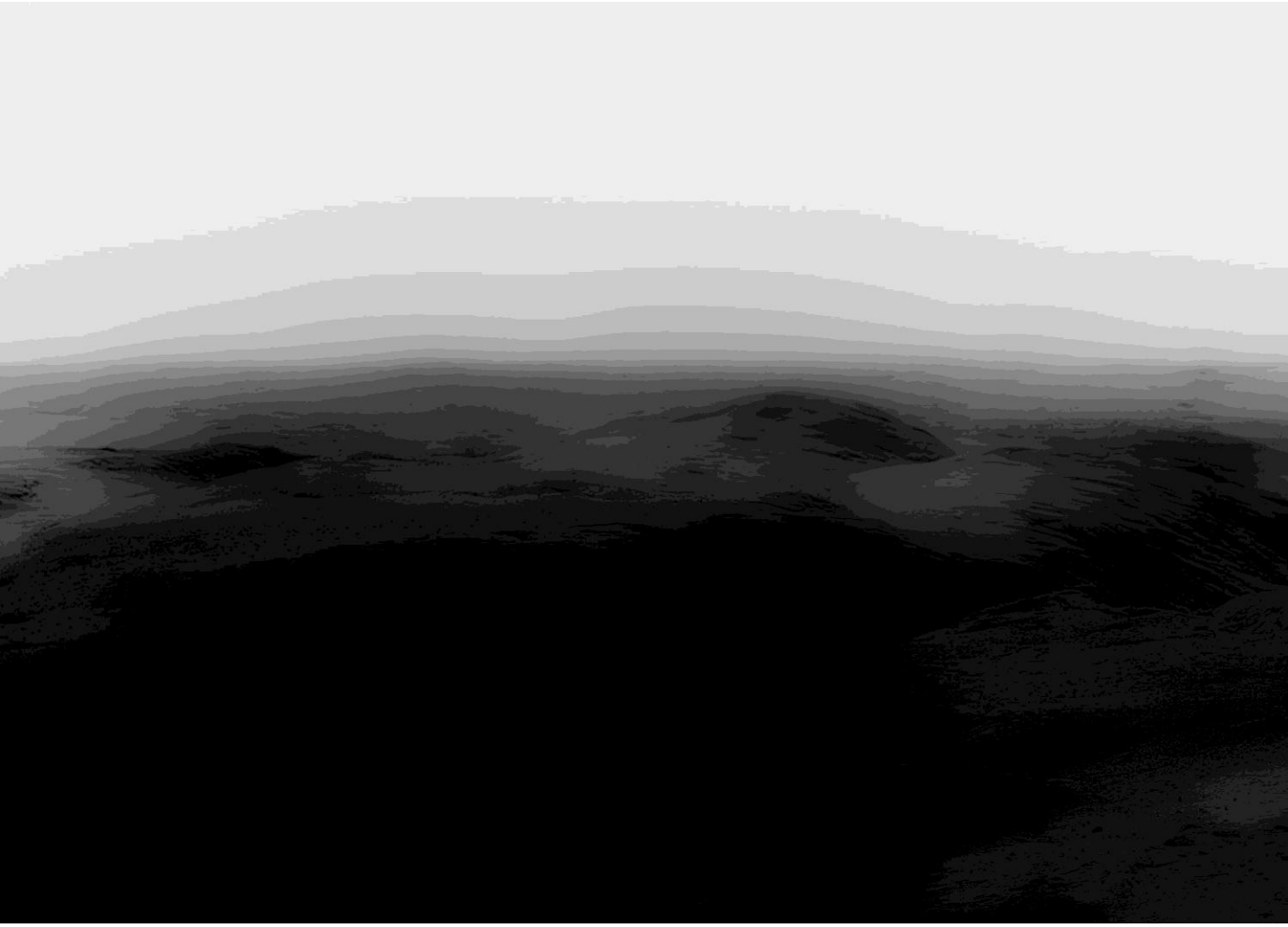
SOLO SHOWS

2025 카라스랠러리/서울.
2024 세인갤러리/서울.
탄갤러리/대전.
선나갤러리/서울.
2022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청주.
자인제노갤러리/서울.
2021 청주시립미술관 초대전/청주
자인제노갤러리 초대전/서울.
DTC아트센터 초대전/대전.
2020 랩마스아트 초대전/대전.

GROUP SHOWS

2025 ,흐름을그리다, 충북민미협화원전/숲속갤러리./청주.
2024 '오아시스2024/청주교대 갤러리.
2022 한국 민족미술인협회 정기회원전/ 한국교원대 미술관.
'오아시스2022 物,心,性전'/청주교대갤러리.
제 1회 청주 소셜 디지로그(digilog) 아트페스티벌/한국공예관.
2021 인터불고 앤 아트/대구 인터불고호텔.
'오아시스2021 物을 찾아서'/청주교대 갤러리.

민병길



심상풍경#12

72 x 53 cm
피그먼트프린트
2024

13

PARK YOUNG HAK

박영학

박영학 PARK YOUNGHAK

SOLO SHOWS
2024 Galleryartpark, 칼스루헤, 독일
2023 갤러리 마노, 서울
2022 영은미술관, 경기 광주
2021 스페이스몸 미술관, 청주
2018 박영덕 화랑, 서울
2017 LEE galerie BERLIN, 독일
우민아트센터(올해의좋은작가수상전), 청주

GROUP SHOWS
2024 한일예술통신, 터미널교토, 일본
우리만 보이는 풍경, 네오아트센터, 청주
KIAF, 코엑스, 서울
환경을 넘어선 예술, 영은미술관, 경기광주
단아한(영은미술관 특별순회전), DYC갤러리, 대구
2023 KIAF, 코엑스, 서울
비움과채움, 메타라루나갤러리, 서울
새로운시작, 네오아트센터, 청주
2022 대구아트페어, 엑스코, 대구
KIAF, 코엑스, 서울
한·중 현대미술의 새로운 좌표, 쉐마미술관, 청주

RESIDENCY
2022~2025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2기(장기),YAFP 입주작가
2020~2021 푸른지대창작샘터 1기 입주작가
2010~2011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

PROFSSIONAL BACKGROUND
청주대학교 아트앤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단아한 25-03

72 x 60.2 츠
Korean paper on
Banghaemal(Stone powder)
on Charcoal on Pencil
2025

11.

사윤택

SOLO SHOWS

2025. 〈동굴 시네마〉 가나아트 OKNP, 서울
2023. 〈졸고 있는 소년〉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22. 〈물성적 사태〉 GS칼텍스미술관, 여수/장도 외 다수

GROUP SHOWS

2025. 〈Magic World〉 영화의 전당, 부산
2025. 〈마법의 순간-자라나는 상상〉 동탄아트스페이스, 동탄
2024. 〈세상과 함께 산다는 것〉 이응노미술관, 대전 외 다수

사윤택

10seconds

벽지 위에 펜
2024

15

So, Young Ran

소영란

소영란 So, Young Ran

SOLO SHOWS
개인전 21회 / 부스전 12회
2022 청주시립미술관 로컬프로젝트 2022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22 코리아 아트페어 부스개인전 (코엑스A홀, 서울) 외 다수

GROUP SHOWS
2022 20인 초대전 (춘복여관, 대전)
2022 드로잉코드전 (숲속갤러리, 청주) 외 다수

OTHER PROFESSIONAL HIGHLIGHTS
1990 미술세계대상전 특선
1991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991 한전 미술대전 서양화부문 금상
2008 세계평화 미술대전 입선
2010 세계평화 미술대전 비구상부문 입선

Blooming

90.9 x 72.7 cm
Oil on Canvas
2025

16

Son, Bu-Nam

손부남

SOLO SHOWS

개인전 29회
2001 충북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졸업
1983 충북대학교 미술교육과졸업

GROUP SHOWS

단체전 200여회

손부남 Son, Bu-Nam

2025
SONTEGUNAM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있다.

91 x 73 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25

17

Young Young Age

연영애

연영애 Yon Young Ae

SOLO AND GROUP SHOWS

개인전 및 부스전 23회(청주 서울 Paris, 대전 Tokyo,인천, 그리스, New York 등)
제13회 아시아현대미술전(Tokyo, 일본)
L.A. 및 서울국제판화교류전(Los Angeles , U.S.A & Seoul)
Paris 2007 한.불작가 교류전 (Paris, Espace Beaurepaire)
전국 대학 교수 60 인 초대전(전북대학교 삼성 문화관 전시장)
싸롱 도 똔느 2007/ Salon D'Automne 2007 (Paris,Espas Auteuil)
청주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내일을 위한 오늘전 (신미술관, 청주)
어느 누가 답을 줄 것인가 (청주시립미술관)
Art Expo New York 2017 (pier 94 1 NYC, U.S.A)
이것이 청주 미술이다 (청석 갤러리,청주)
청주 현대 미술 Oasis 1-6회전 (청주교육대학 미술관)
한국 여성미술 120 인전(국회 갤러리,토포하우스 갤러리)
청주국제현대미술전 - 한국 프랑스 Korean Artists 특별전 (쉐마 미술관,청주)
군립생거진천판화미술관 증축 개관 기념 전 (진천판화미술관)
2007-2023 무심회화회전 (신미술관 등)
Neo-Art Center 개관기념 53인전 (네오아트센터, 청주)

PROFSSIONAL BACKGROUND

현) 서원대학교 명예교수
사단법인 한국여류화가협회 이사장

이 야 에
2025

Calm

72.7x 72.7 cm
Acrylic on Canvas
2025

18

오송규

Oh, Song Gyu

SOLO SHOWS

3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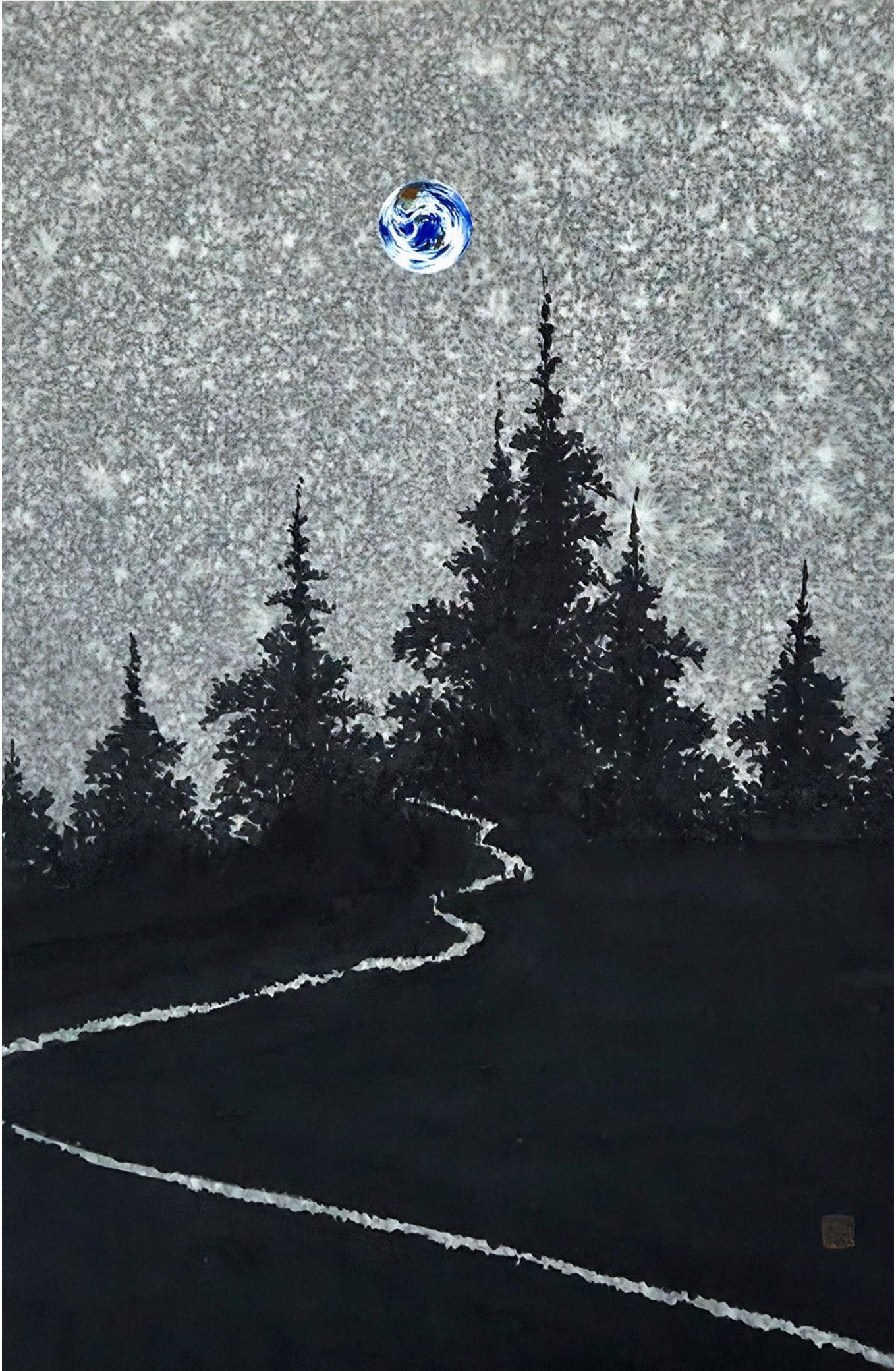
GROUP SHOWS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챈나이 챔버 비엔날레(챈나이/인도)
청주시립미술관 개관 기념전(청주시립미술관)
한국화-옛뜰에 서다(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부산비엔날레 특별전(부산문화회관)
수묵에 길을묻다(한국소리문화의 전당)

PROFSSIONAL BACKGROUND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한국기초조형학회이사, 동서미술문화학회 부회장
한국미술협회
청주미술협회 회원

오송규 Oh, song gyu



소요유 2025-3

72 x 59 cm
화선지에 수묵
2025

19

Woo Eunjeong

우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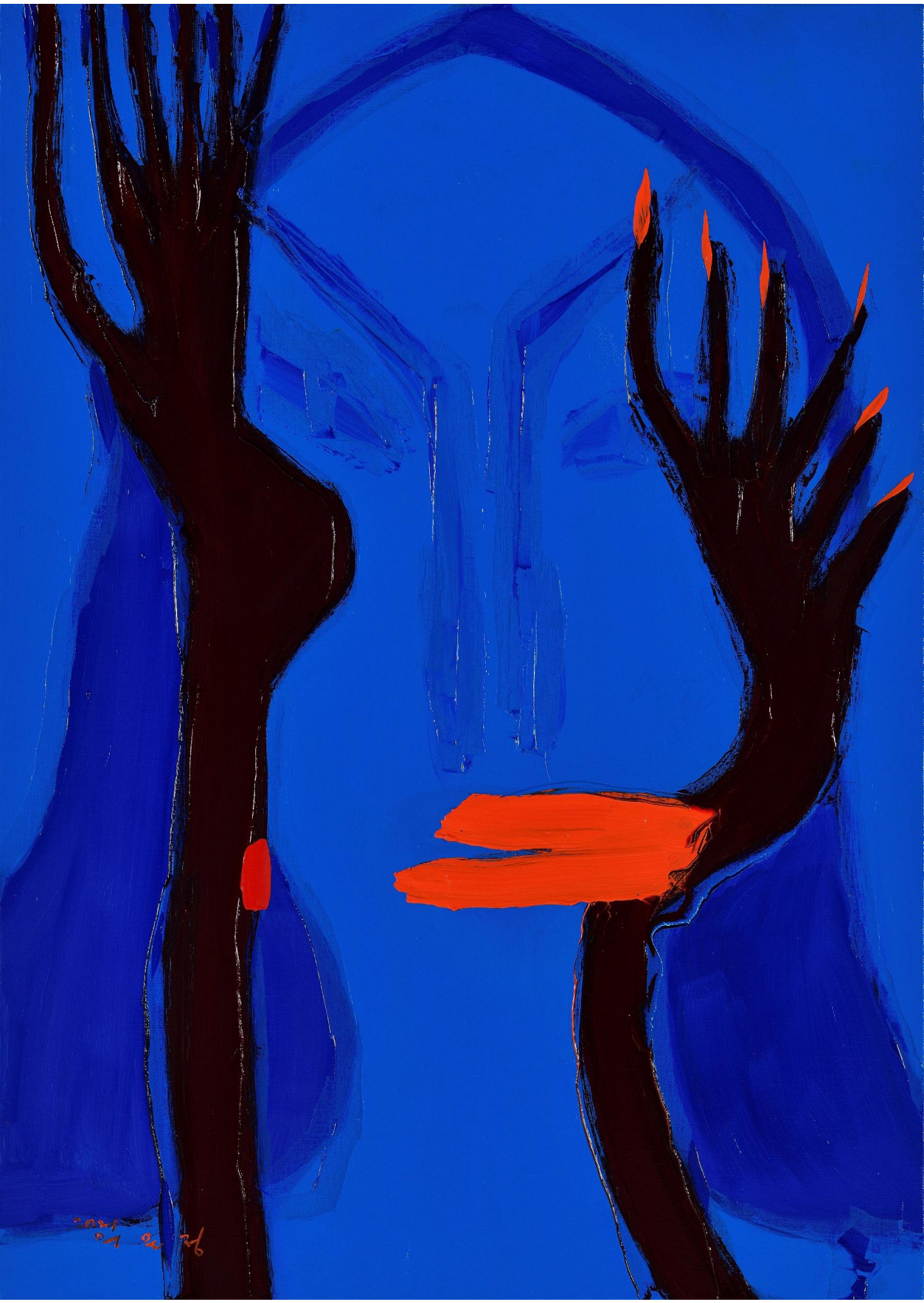
우은정 Woo Eunjoung

SOLO SHOWS

2023 참 아름다운 신화의 시간을 건너,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 청주
2022 참 아름다운 신화의 시간. 갤러리정스, 청주
2022 로컬 프로젝트, 청주시립미술관

OTHER PROFESSIONAL HIGHLIGHTS

22회 충북미술대전 서양화 대상
1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비구상 특선
1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비구상 특선
1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비구상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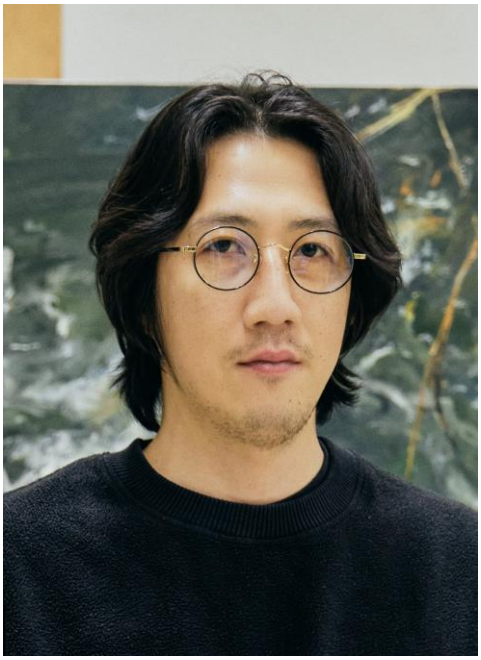
참 아름다운 신화의 시간

30호
캔버스위에 유채
2021

20

LEE KYUSUN

이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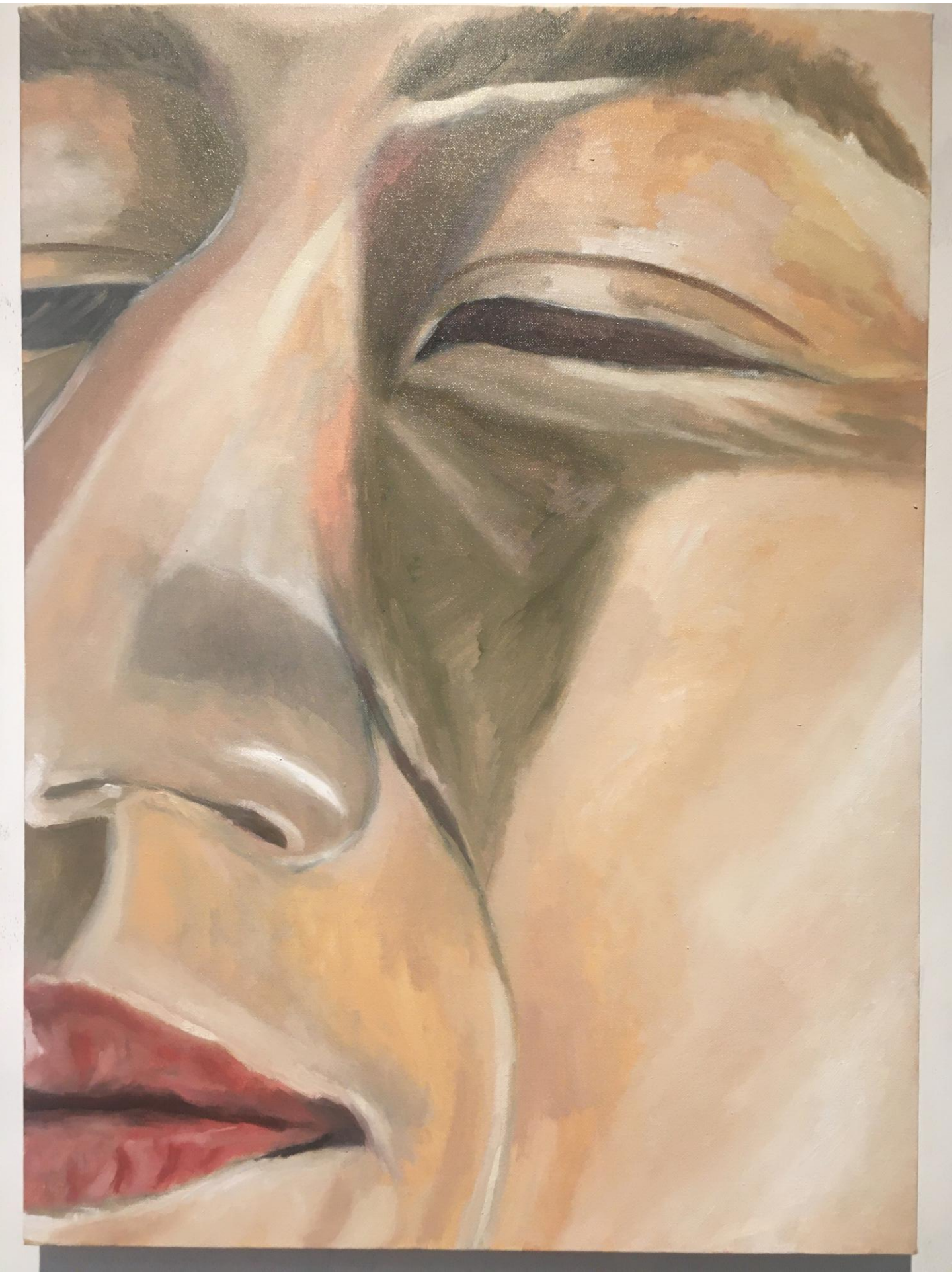
SOLO SHOWS

2023 <회사원 이씨>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GROUP SHOWS

2024 아트랩대전, 이응노미술관, 대전
2023 기도메타, 인사아트센터 충북갤러리, 서울
2023 부드러운인생, 쉐마미술관, 청주
2022 내일의 미술가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외 다수

이규선 LEE KYUSUN



슬픔과 아픔 그 언저리

72.6 x 60.6 cm
캔버스 위에 유채
2025

21

LEE GYUSIK

이규식

이규식 LEE GYUSIK

SOLO SHOWS

2024 〈잔혹한 예지(叡智) 혹은 예지(豫知)〉, 네오아트센터, 청주
2019 〈自 · 自 · 自〉,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5 〈Obsession(집착)〉, 청주창작스튜디오, 청주
2012 〈When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스페이스몸미술관, 청주

GROUP SHOWS

2025 〈오아시스〉,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 청주
2025 〈색에 물 들다〉, 당산 생각의 벙커. 청주
2024 〈한일예술통신〉, 터미널 교토, 교토. 일본
2024 〈무심〉, 네오아트센터, 청주
2024 〈어쩌다 마주한 당신의 세계〉, 충북갤러리, 서울
2024 〈애니매이트 : 움직임의 탄생, 한국-헝가리〉, 숲속갤러리, 청주
2024 〈우리만 보이는 풍경〉, 네오아트센터, 청주

돌

둘레 42cm
자연석
2025

22

Lee, KI-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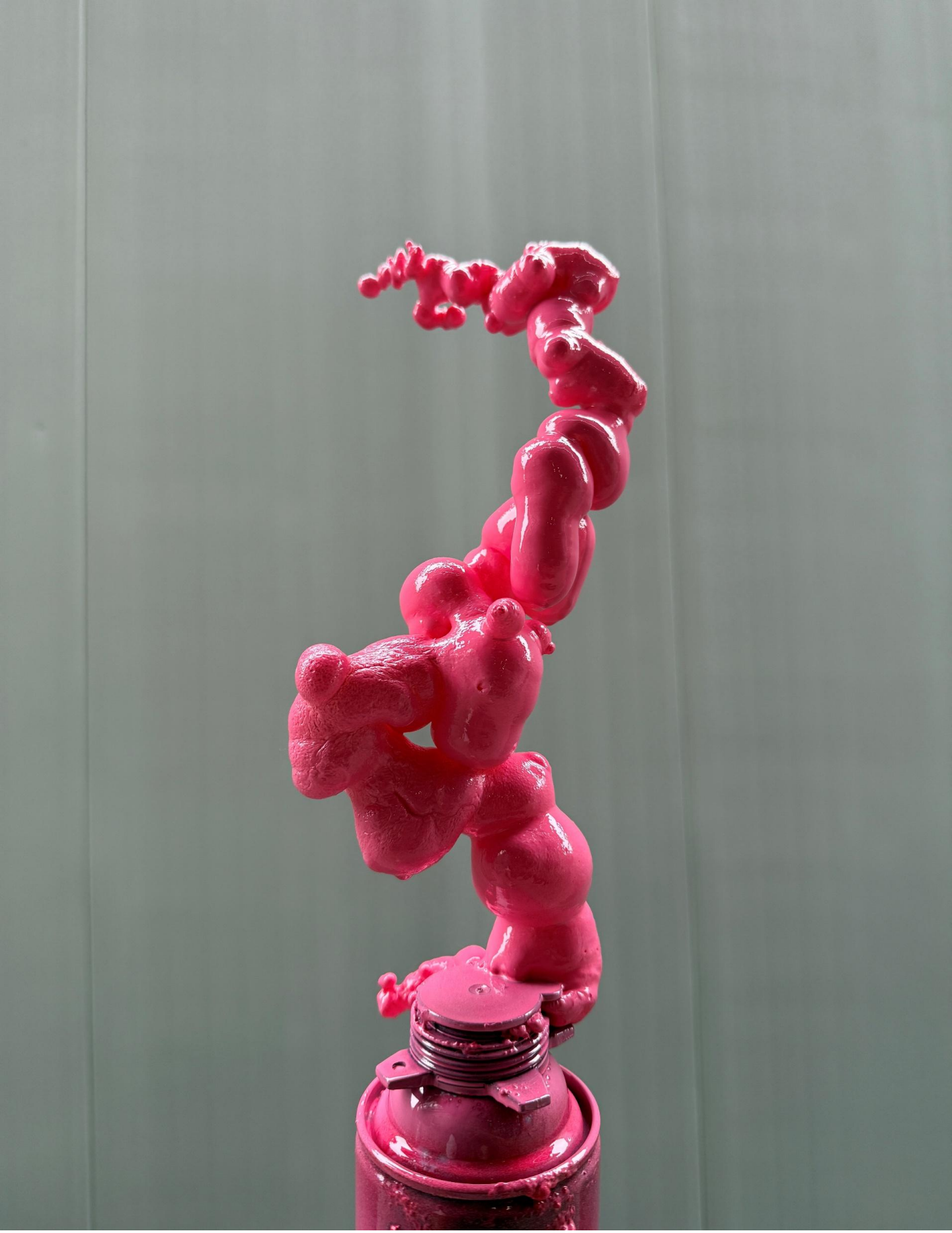
이기수

SOLO SHOWS
개인전 30회 (개인전-13/아트페어전-17회)

PROFSSIONAL BACKGROUND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한국조각가협회.한국구상조각회
한국기초조형학회
석조각회장역임,
충북조각가협회장역임
청주미술협회부회장역임

OTHER PROFESSIONAL HIGHLIGHTS
KSBDA 2016 한국기초조형학회 국제기획초대작품전 최우수작품상 수상
KSBDA국제학술대회 우수작품상
청주시 신인예술상 수상

이기수 LEE, KI-SOO



Recording - 팽창

부분
혼합매체
2025

23

Lee, Sang Heon

이상헌

이상헌 Lee, sang heon

SOLO SHOWS
개인전 19회

GROUP SHOWS
아트그라운드2023 런던(사치갤러리), 영국
제8회 북경베엔날레-한국특별전(중국 국립미술관), 중국
부산비엔날레2008 - 미술은 지금이다, 부산
그 외 다수

PROFSSIONAL BACKGROUND
충북대학교 예술학과군 조형예술학과 조교수

또 다시, 불어오다

100x 20 cm
장지에 채색, 먹, Acrylic
2022

21.

Lee, Yong Taek

이용택

SOLO SHOWS

2025 제20회 개인전(갤러리 몸, 서울)
2024 제19회 개인전(에스키즈 아트갤러리, 이즈미르, 튀르키예)
2024 제18회 개인전(인사아트센터 충북갤러리, 서울)
2023 제17회 개인전(청주교대미술관전시실, 청주)
2018 제16회 개인전(갤러리 자인제노, 서울)
2017 제15회 개인전(갤러리 테마나인, 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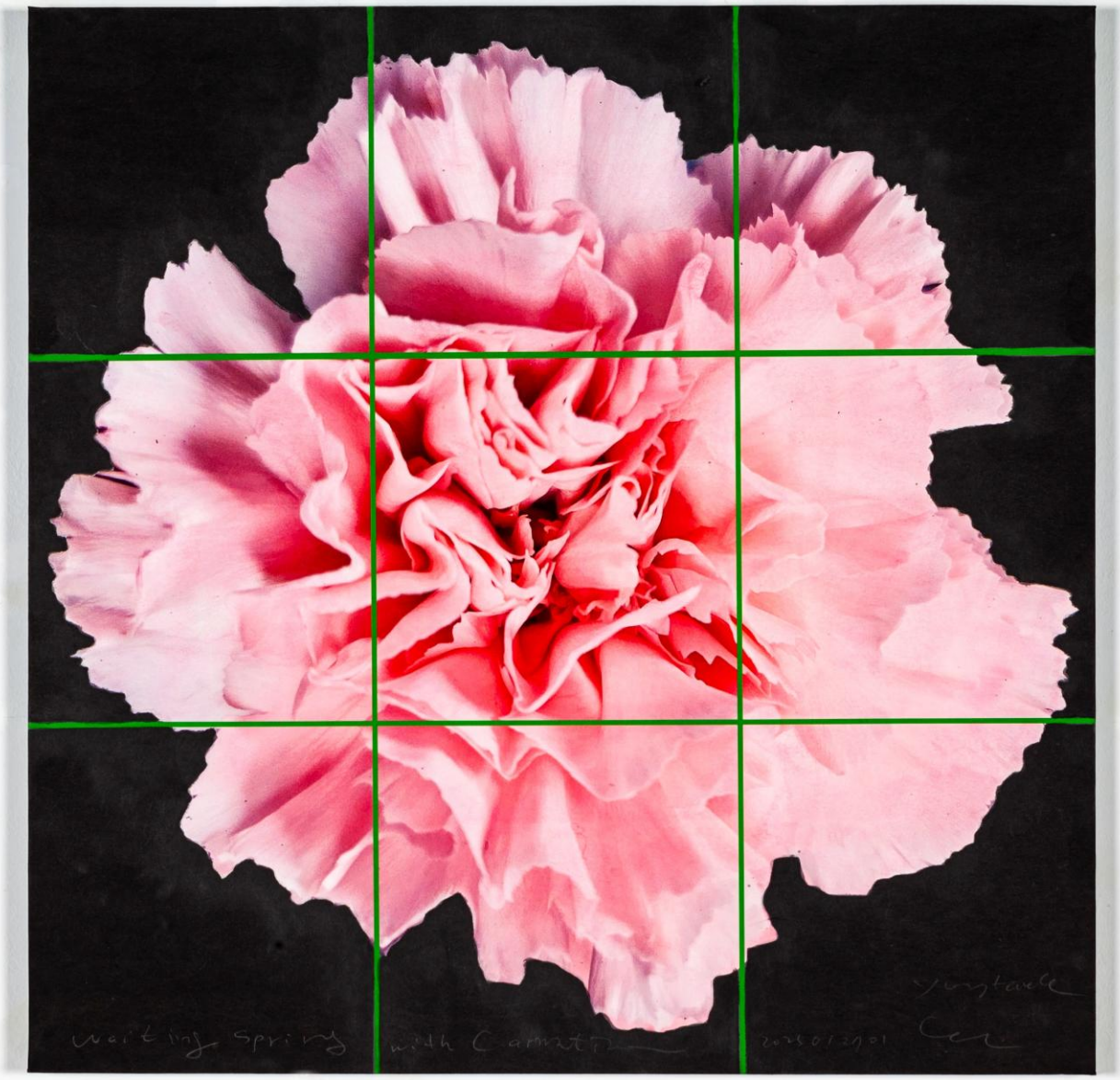
GROUP SHOWS

1989년 이래 청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포항, 일본, 중국, 멕시코, 미국 등에서 약 280여회

PROFSSIONAL BACKGROUND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 동 대학원

이용택 Lee, Yong Taek



Waiting spring with carnation 2025012701

70 x 70 cm
Mixed Miedium on Paper
2025

25

Lee, Jong Kwan

이종관

이종관 Lee, Jong Kwan

SOLO SHOWS

2025 장소 바깥의 장소(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청주)
2025 Resonance(SSVAD, Kala Bhavan, 비스바라티대학교, 인도)
2024 Breathe(실파콘대학교, 방콕, 태국)
2024 Street-이종관의 브리콜라주(충북갤러리, 서울)
2023 산산조각(사이아트스페이스, 서울)
2023 Au coin du Maghreb(파랏 아체드 B/D, 투니스, 튀니지)
2021 Continuous Lifespan(청주교육대학교미술관, 청주)

메디나의 봄(Medina Rebellion)

55 x 72 x 12.6 cm
폐스티로폼, 마네킹 손
2024

작가 노트

과테말라의 아티틀란 호수 부근 산페드로에서 몇 달 머문 적이 있다. 화산 분화로 생긴 커다란 담수호인데 간간이 호수 주변으로 밀려든 쓰레기(스페인어로 '바수라')로 작업을 했던 것이 시작이고 표현의 단초다. 그림 그릴 재료와 도구, 작업장이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쓰레기가 물감이 된 셈이다. 이후로 중남미나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의 거리와 골목들을 쏘다니면서 버려진 사물들을 주워 모았고 최근에는 커다란 그물이나 천들도 함께 수집했다. 보잘것 없고 쓰잘 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간택 받고 온 것이다.
내가 세월과 손때 묻은 물건들 즉 쓰레기나 버려진 사물에 주목하는 것은 이 표정 풍부한 물건들은 물감으로는 안 되는 독특한 빛깔과 모습으로 어떤 국가나 도시의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냄새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관심 있는 사물들을 주워다 요모조모 궁리해서 보여주는 브리콜라주 형식이다. 쇼파 껍질을 까고, 그물, 포장박스, 마네킹, 조그만 인형, 양파망, 장난감, 빗자루, 스티로폼, 방지석 등 거리에 버려진 각종 오브제를 활용한 작업이다.

2024 충북갤러리 개인전

26

Yi:mm, Mi: - ma

임미나

SOLO SHOWS

10회

GROUP SHOWS

다수

임미나 Yim, Mi-na

Beyond City 25-01

60.0 x 60.0 cm
Enamelprint on Canvas
2025

27

임민수

lim min su

임민수 Lim min su

SOLO SHOWS
7회

GROUP SHOWS
2025. 청주미술협회전 (청주예술의전당,청주)
2025. 월드아트엑스포 올림피아트(코엑스,서울/1.16-1.19)
2025.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결과보고전/점등하는 초점들(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청주)
그 외 다수의 전시

관수觀水 - 일상

100 x 94cm 6개 가변설치
낚시줄, 혼합재료
2025

28

장백순

SOLO SHOWS

24회

GROUP SHOWS

150여 회

OTHER PROFESSIONAL HIGHLIGHTS

충북예술상 수상
충북현대예술상수상
청주신인예술상수상

장백순

공(空)

마(麻)
75 x 60 x 100 cm

29

JUNG MINYOUNG

정민용

정민용 JUNG MINYOUNG

SOLO SHOWS

개인전 4회

GROUP SHOWS

대전국제미술교류회 2021
동경학예대 한일교류전 2021
공통분모 2020
조각프로젝트 BAND TOGETER II 2019
라베리타 기회 초대전 2018
오늘의 충북 조각가의 표상전 2017
한중교류전(중국 장춘) 2016

Hand –made
(핸드메이드)

50 x 50 x 50 cm
F.R.P,
스테인레스(Stainlee Steel)
2021

30

Choi, Kyurak

최규락

SOLO SHOWS

14회 개인전 stranger things, eskiiz art gallery, turkiye

GROUP SHOWS

IAAF. izmir art fair,fuar izmir, turkiye
청주무심회화회 한국, 튀르키예 교류전, 어제와 오늘, 네오아트센터,청주
NOMAD 2024. 교토 마로니에 갤러리, 일본
New direction, 에스키즈 갤러리, turkiye

최규락 Choi, Kyurak

Blood in, Blood out

42 x 130 x 4 cm
Mixed Material
2025

31

Choi ik-gyu

최익규

최익규 Choi ik-gyu

SOLO SHOWS

총 9회

GROUP SHOWS

에스팩트전 외 다수

최익규 작가노트

최근 몇 년 동안 나이 작업은 나를 지배하고 지탱해 준 모든 예술적이란 어떤 관념들을 버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작품을 해왔다. 그래서 그냥 나의 예술적 생각이나 이념을 완전히 뺀 의미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낙서나 단순한 바느질 선 긋기 같은 행위들의 반복을 한다. 남루하고 부끄러운 나의 속을 남에게 보여주거나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는 강요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작업에 임했다. 나의 바느질과 같은 어떤 행위는 예술이 아니다. 그것이 솔직한 나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진짜 순수한 예술에 가까워 지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한다.

무제

80 x 100 cm
천에 바느질 채색
2023

32

Han Hee Joon

한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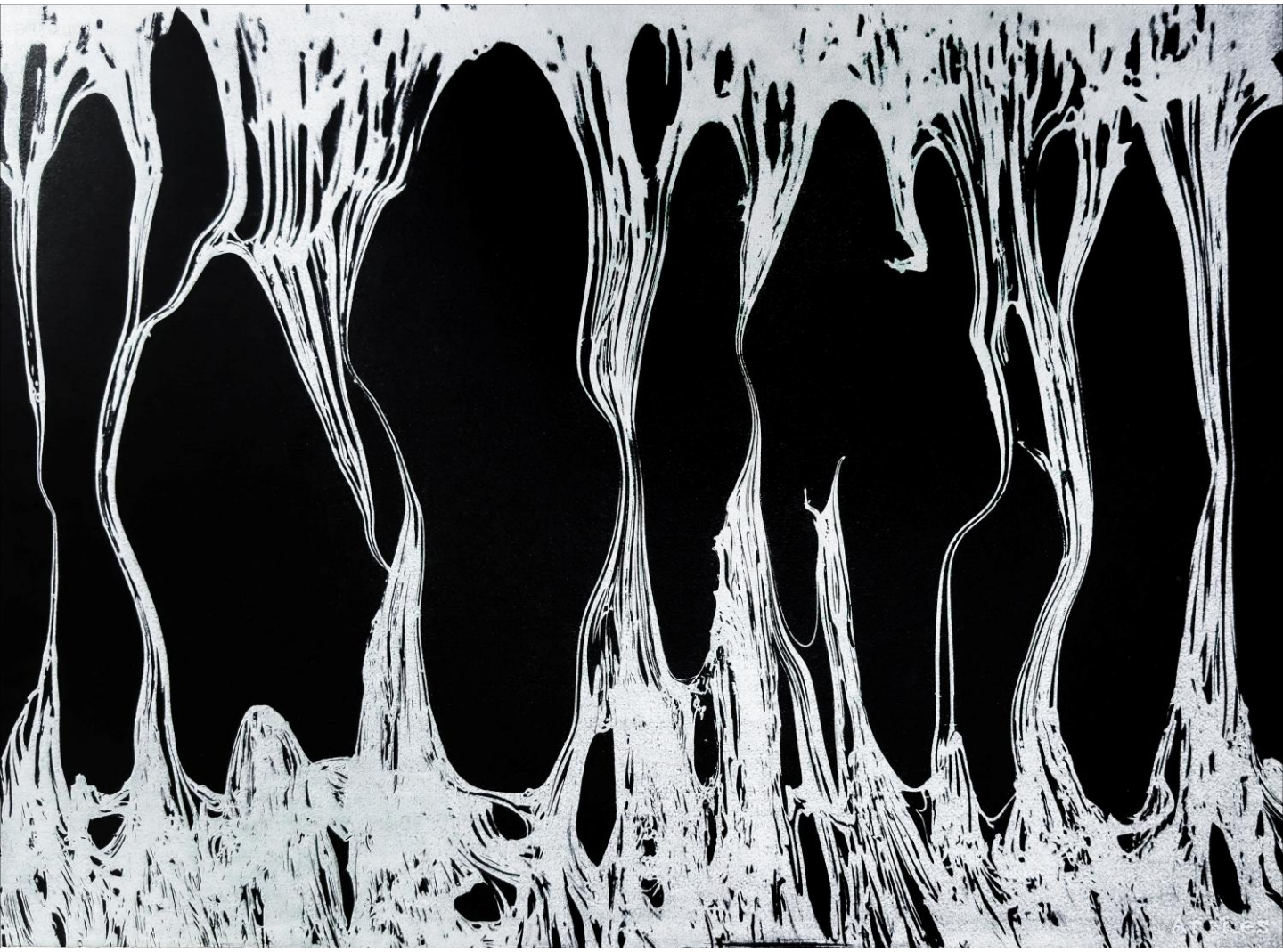
SOLO SHOWS

2024 “변화하는 기후와 변형되는 환경” (강남 스페이스22)
2023 “인간과환경사이” (청주 예술곳간)
2022 “plastic”- 다시 태어나다 (청주 한국공예관)
2022 “plastic”- 묻히다 (방배동 H art bridge)
2021 “plastic”II (인사동 갤러리라메르) 외 6회

GROUP SHOWS

2024 2024대청호환경미술제 “물은 다정하게 흐른다”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2023 ART MARKET BUDAPEST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air (Balna Budapest)
2023 충북-헝가리 국제교류전“ 우연한 만남”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2022 야외컨테이너전 SHOW CON. PLASTIC-‘배회하는’ (오산시립미술관)
2021 ‘ReSaesang’기획전 (강남 유나이티드 갤러리) 외 200여회

한희준 Han Hee joon



흐려지는 경계

75 x 55 cm
검 바이크로메이트
2025

CRITICAL ESSAY
KIM CHONG GEUN

청주현대미술회 Oasis

김종근 (미술평론가)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나는 내 삶에 대해 어떤 확신도 갖고 있지 않다. 별들의 풍경은 나를 꿈꾸게 한다. 너의 영감과 상상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자신의 틀에 가두지 않길 바란다. 위대한 성과는 작은 일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청주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들의 그룹으로 평가받는 <오아시스> 그룹은 올해로 7회를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충북지역의 예술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예술이라는 본질을 탐닉하고 물성을 연구”하는 32명의 작가들로 구성된 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아시스는 단어가 의미하듯 오아시스(Oasis)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나무나 풀이 자라는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지역을 말한다. 즉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부여하는 즉 척박한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 시켜 주는 장소를 지칭한다.

충북이라는 청주라는 지역이 그러하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상징적 의미 구원의 상징을 말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청주 현대미술 작가회 오아시스는 지역(地域)+미술(美術)전이라는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향후 지역 미술 변화의 흐름과 양식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그룹은 다양한 작가들로 여타의 이념이나 장르를 불문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예술이라는 본질을 탐닉하고 물성(物性)을 연구하는 작가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양식의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향후 지역 미술 변화의 흐름과 양식을 제시하고 작품을 통해 표출되는 다양한 개념과 양식은 현대미술의 확장적 개념이 향후 이 충북지역을 넘어 확대, 발전하게 되는 전환적인 계기의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의 작품세계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먼저 강호생은 수묵과 담채 작업으로 단순 수묵뿐만 아니라 채색을 가미하면서 그 기법이나 표현에서 그 수려한 필력이 강렬하게 돋보이는 작품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김경섭은 인상은 다르지만, 기억 속에 남겨진 풍경의 모습을 아스라이 담아내며 풍경의 아우라가 주는 침묵적인 회화성을 연출하고 있다.
김성미 작가는 보다 구상적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얻어지는 사려가 깊은 얼굴의 표정을 회화로써 감성적으로 인상 깊게 그려내고 있다.
김승현 작가는 보다 입체적으로, 꽃의 집적이란 주제로 의자와 꽃이 제시할 수 있는 조형적 오브제가 줄 수 있는 형태미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영란 작가는 한지에 꽃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여성적인 시각에서 그 모습들을 고요하고 정적인 형상으로 감정을 담아낸다.
김정하 작가는 마치 패션의 워킹 모습을 떠올리는 감각으로 구성과 배열구성에서 그만의 독특한 자세의 흐름과 문양, 그 공간을 보여준다.
김정희 작가의 작업 주제는 사물과의 대화, 생성과 소멸 등 시간에서 오는 변화에 일관해 왔다. 이러한 자연의 풍경 시간과 소멸의 영역에서 시각화하고 있다.
김지현 작가 역시 보편적 이념이나 개념을 넘어 조형과 형태미에 대상을 평면 위에 표현하고 있다. 그 기본이 되는 이미지와 색채가 그래서 중심이 된다.
김태복 작가도 전체적인 원형의 형태에 나비의 이미지를 중첩 시켜 형상화하는 패턴으로 특징을 부여하고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의 분열된 기억을 회화의 깊이로 충실하게 정착시키고 있다.
김태철 작가는 소외된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대표적인 것이 주변에 널린 잡초들을 소재로 다룬다. 특히 선한 관계와 악한 관계에서 생기는 인연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다.
문호 작가는 색다르게 형상의 재현보다는 회화로서, 사진을 촬영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픽셀 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품을 완성한다. 형상과 색이 해체되며 색 조각들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새로움이 보인다.

민병길 작가의 모티브로서 화두는 숨이다. 자연의 모든 대상을 그 자체로 바라보고 그 대상 안으로 스며 들어가 그 대상으로 이입되어 보는 일 자체가 사진 작업인 것이다. 마치 수묵 같은 동양화 같다.
박영학 작가는 단아한 풍경의 산과 나무의 인상을 단순과 생략으로 묘사한다. 그것은 마치 서양화와 동양화를 한 화면에 배열하며 아우르듯 구성의 신선함이 포착된다.
사윤택 작가는 순간적인 시간에 포착된 생채기 같은 선들을 순간의 회화로써 존재하게 하는 개념적 미의식을 보여준다. 마치 시간과 공간과 현실의 세계를 경계를 향하는 것처럼 말이다.
소영란 작가는 “화양연화”란 어휘처럼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 지금이라고 말하는 꽃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조형적으로 구성화 하고 있다. 그 구성미와 조화로움이 돋보이는 이유이다.
손부남 작가는 드물게 그리고 치열하게 인간과 동식물들이 염원하는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사색적인 분위기로 세련되게 나타내준다. 자유로움의 표현과 형상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지평을 열어 보이는 것에 특별함이 주어진다.
연영애 작가는 꽃잎의 형태를 투명한 제스츄어로 마치 흔적으로 삶에서 체득되는 아름다운 기억의 세계를 따뜻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그려낸다. 그 내면의 고요함에 메시지가 인상 깊게 다가온다.
오송규 작가는 가장 동양적인 정신과 자연을 중심으로 작가의 이상향인 어떠한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노니는 유희 정신 즉 소요유(逍遙遊)의 세계를 화면에 담백하게 풀어내는 격조의 수묵화를 구현하고 있다.
우은정 작가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날의 바람을 묘사하듯 여인의 표정을 소묘하듯 즉흥적이고 격정적인 색채로 감정적인 붓 터치로 표출한다.
이규선작가는 인간 삶의 한 표정을 클로즈업시켜 슬픔과 아픔의 표정에 접근하는 극적인 감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솜씨의 테크닉을 드러낸다.
이규식 작가는 자연석 즉 돌을 공간에 붙들어 놓는 다분히 인간과 자연에 관한 행위의 침묵적 메시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더욱 철학적이며 존재론적인 동양적인 시형식의 내면을 노출 시키고 있다.
이기수는 사물의 내재해 있는 질료가 팽창되어 나오는 과정과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으로 형태화 하거나 시각화하는 느낌을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점이 흥미롭다.

이상헌작가는 동양적인 시선과 감성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들풀들의 형상을 자연의 풍경에 접목하는 사유적인 화풍으로 화면을 집중하게 한다.
이용택 작가는 끊임없는 실험과 탐구를 통해 사실적 표현의 새로운 아름다움과 구성을 제시하는데 시간과 공간, 생성과 소멸이라는 꽃이라는 주제를 넘어서고자 한다.
이종관작가는 쓰레기나 버려진 사물에 주목하는 특별함이 부여된다. 표정이 풍부한 물건들을 독특한 빛깔과 모습으로 브리콜라주 형식으로 거리에 버려진 각종 오브제를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임미나 작가는 자연의 그림자조차 부재한 인공의 공간에 주목한다. 거리의 풍경에 있는 건물을 선물 포장처럼 비유화 시켜 동물 이미지를 올려놓는 이미지의 중첩과 메시지 형식이 경쾌하다.
임민수 작가는 물을 바라보는 관수(觀水) 일상을 가변적인 설치로 보여주는 작가이다. 재료는 낚싯줄 같은 혼합재료로 부드러운 이미지로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 변화무쌍한 형태의 창조가 눈길을 끈다.
장백순 작가는 입체작품의 독특한 재료인 마로 색다르게 인물을 제작하는 독창적인 재료가 돋보인다. 형태도 그 특징을 자신이 마치 불상처럼 좌선하고 있는 인물을 빗대어 구축하는 정체성을 강조한다.
정민용 작가는 손(手)과 물질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뒤섞인 이미지를 통해 욕망과 그 욕망에서 나타나는 삶의 에너지를 작품에 담고 있다. 욕망을 표현하는 손의 형태와 움직임이 특징적이다.
최규락 작가도 다양한 인물의 초상을 한 화면에 담아내어 각자 인물의 표정과 특성을 드러내는 나열하는 콜라주 기법의 구성으로 인물 형상을 조화롭게 구성해내고 있다.
최익규는 천에 바느질의 채색으로, 모든 예술적이란 관념들을 배제하고 예술적 생각이나 이념으로 의미 없는 낙서나 단순한 바느질 선 긋기 같은 개념적인 행위로 작품 세계를 표출하고 있다.
한희준 작가는 검바이크로 메이트로 기후와 환경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모티브로 삼는 드문 작가이다. 인간과 환경의 문제를 아주 중요한 예술적 주제로 생각하는 것이 이색적이다.

개략적으로 살펴본 이 참여 작가들의 세계는 이처럼 다양하고 독창적이며, 그들만의 성격과 전달 형식들이 풍부하다. 또한, 작품을 통해 표출되는 다양한 현대미술의 개념과 양식이 미술 확장의 개념으로 볼 때 충북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의 그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양식의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향후 지역미술 변화의 흐름도 지켜볼만 하다. 청주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개념과 양식은 충북의 미술이 이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진출이 가능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주목 한다.
앞으로도 '오아시스'미술 그룹이 현실에서의 희망, 휴식처, 또는 필요한 해결책을 뜻할 때 "오아시스"라는 용어를 즐겨 쓰듯이 모든 충북 예술가들에게 사막 위의 샘물이 될 것을 미리 축하한다.

창비 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2층